

## 금산의 또 다른 자랑. 다락원(多樂苑)

김호택 (금산 연세소아과 원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음에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일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른다.

문화란 유식한 표현으로는 정신의 활동과 생활양식을 합쳐 부르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문화란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고도의 정신활동까지를 아우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문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화에도 수준이 있을 것이고,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 스스로 문화의 고급화를 갈망함으로써 그 집단의 문화수준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음식에 문화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자.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일년 내내 라면만 끓여 먹으며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혹은 어떤 부자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는 거금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부류의 사람 모두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자신이 맛있게 먹었고 또 현재 배가 부르다면 만족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일년 내내 라면만 먹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지 못한다고 뽕얼거리는 부자도 있을 것이다.

금산은 충청남도의 동남쪽 끝자락에 붙은 전형적인 농산촌지역으로, 인삼과 약초를 트레이드 마크로 살고 있는 고장이다.

대표적인 건축물로 금산향교라는 유서깊고 아름다운 건물과 칠백의총이라는 사당이 있기는 하지만, 내놓고 자랑할 만한 현대적인 큰 건물이나 아름다운 시설은 없었다고 봐야 하겠다.

기실 건축문화란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종합된 예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토양이 자랄 수 없는 곳에 건축물만 아름답게 지어

질 이치는 없는 것이어서 금산이라는 작은 농촌지역에 자랑할 만한 건축물이 없다는 불평은 사치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기적과도 같이 금산에 정말 아름답고 쓸모 많은 건물군(建物群)이 생겨 버렸다.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합쳐 다락원(多樂園)이라 부른다.

우선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연극공연이 가능한 소공연장을 중심에 두고, 좌우로 보건소, 노인의 집, 청소년의 집, 장애인의 집 등을 비롯한 복지 관련시설과 금산문화원이 자리잡고 있고, 곧 스포츠센터까지 준공된다면 명실공히 금산주민들의 복지와 문화를 위한 대부분의 하드웨어가 한 곳에 모이는 시설들의 집합체가 될 것이다.

금산 주민들은 영화와 연극의 공연은 물론, 합창과 농악과 서예 같은 연습이 필요한 문화부터 꽃꽂이, 요가와 같은 취미활동까지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가수 이미자씨의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었고, 개막식 전야제에는 금산에서 오페라가, 그것도 그 유명한 작곡가 푸치니의 '토스카'와 '라 보엠'이 공연되는 밑지 못할 일도 있었다.

개막식에는 가야금의 명인으로 우리 국악계에 한 획을 그은 황병기교수가 직접 작곡하신 곡을 들고 나와 연주를 하는 바람에 수많은 국악을 애호하는 사람들을 감격하게 하기도 했다.

금상첨화(錦上添花)로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선정한 '2004년에 대한민국에서 건축된 최고의 건물 7동 중 하나'로 선정되어 국내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로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제 금산을 방문하는 사람은 시내에 들어서면 초입에 예쁘고 웅장한 건물의 집단을 보게 되고, 그 건물들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리고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서면 건물의 아기자기한 배치와 예술적인 꾸밈에 감탄해 한다.

혹자는 금산의 관문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큰길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답답해 보인다고도 하고, 주차장 면적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고도 한다.

어떤 외지 사람은 혹평하기를 '이런 좋은 시설을 금산사람들(말하자면 촌

놈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는가’ 하고 비웃음을 보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1년간 다락원을 이용하면서 금산의 문화수준이란 것이 대규모의 수준급 공연장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불만이 기우(杞憂)였음을 잘 알게 되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지, 아니면 굉장한 사건 하나를 계기로 급격히 발전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스님들은 돈오(頓悟)와 돈수(頓修)를 서로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문화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인지 하는 논쟁이 있을 법 한데, 금산의 다락원은 후자의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곳 금산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 금산에도 인삼과 약초 말고도 자랑할 명물이 하나 더 생겼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금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산업면에서 고속도로 시대의 개막이라고 한다면 문화예술면에서는 단연 다락원의 개관이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게다가 고속도로는 우리 것이 아니지만, 다락원은 바로 우리 금산주민들의 소유이니, 애착으로 말한다면 다락원의 비중이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다락원(多樂苑)이라는 이름을 한 번 풀어 생각해 보자. 즐거울 락(樂)이란 한자는 열락(悅樂)에서는 락으로 읽히고, 음악(音樂)에서는 악으로 읽히면서, 또 요산요수(樂山樂水)에서는 요로도 읽히는, 다시 말해 훈이 세가지나 되는 드문 한자인데, 여기에 많다는 뜻의 다(多)가 추가되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고 또한 그 용도가 다양할지 기대될 정도로 이름만으로도 다락원이 우리 금산과 이 곳에 사는 우리 금산 주민들에게 미칠 문화적인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이제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놀러 와도 자랑스레 구경시켜 줄 시설물이 금산에도 있으며, 이제 ‘뮤지컬 캣츠를 공연할 장소가 대전에는 있나? 금산에는 있는데’라는 자랑을 해도 ‘땡’이 아닌 고장에 우리는 살게 된 것이다.

아마도 우리와 같은 규모의 고장에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역작을 우

리는 갖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 금산 주민들이 해야 할 숙제가 생겼다.

우리 스스로가 그 훌륭한 창조물을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무언가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가치를 발견해서 이를 갖고 닦아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생긴 것이다.

그리 하여 다락원이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가 아닌, 농촌지역도 문화적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그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역의 세(勢)가 위축되는 이농현상을 반전시킬 계기로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문화란 결국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준이 높아지면 더 많은 문화를 호흡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금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락원이라는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게 된 것을 계기로, 건축문화부터 취미문화까지 다양한 문화체험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이 풍부해지고 인생은 살 만한 것이란 것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